

마지막을 앞둔 환자에게 듣는 진솔한 이야기

문정섭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Unfeigned Story from Patients Facing the End of Their Time

Jeong Seop Mo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012년 추계 소화기연구학회 합동학술대회에서 윤리 강좌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저자는 '소화기 난치병 환자의 이해: 유명인의 투병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¹ 우리나라 소화기 의사는 바쁜 병원 생활을 핑계로 환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교감에 대해 생각하거나 소화기 의사로서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암으로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의 투병 과정을 담은 문헌들을 찾아 되돌아보면서 소화기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화기 의사로서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의 투병 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중 가족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었다.

본론

1. 모리 슈워츠(Morri Schwartz; 1916. 12. 20-1995. 11. 4)

우리에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Tuesdays with Morrie)²이라는 책으로 친숙한 모리 슈워츠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우리에게 루게릭병으로 잘 알려진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으로 사망하였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그의 제자 미치 엘봄(Mitch Albom)이 매주 그를 찾아가 대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쓴 것이다. 모리는 1994년 교수 시절 자신에게 루게릭병이

발병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마지막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먼저 죽기 전 가족, 친지들을 불러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하며 살아 있는 장례식을 올렸다. 그의 인생에 대한 단상은 '어느 교수의 마지막 강의: 자신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1995년 미국 ABC TV 토크쇼 '나이트라인'에 방영되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라"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너무 늦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때 집에서 TV를 보던 제자 미치가 스승 모리의 TV 출연을 보고 그를 찾아가 대학 졸업 후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후 미치는 매주 스승을 찾아 열네 번의 만남을 가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세상

모리교수는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린 후에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자신이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면 자신은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리가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며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리는 자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생은 밀고 당김의 연속으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상처를 받지 말라고 충고하며 우리는 상반됨의 중간에서 살지만 결국은 사랑이 이기게 되어

교신저자: 문정섭, 100-032,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 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orrespondence to: Jeong Seop Mo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9 Mareunnae-ro, Jung-gu, Seoul 100-032, Korea. Tel: +82-2-2270-0012, Fax: +82-2-2279-4021, E-mail: moonjs2@unitel.co.kr

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며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헌신하고,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헌신하라고 말한다.

2) 자기 연민

모리에게 자기 연민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침이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손으로 만져보고, 자신이 잃어가는 것들과 죽어간다는 사실을 슬퍼하지만, 그 다음 본인은 내 인생에 남은 여전히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정신을 집중한다고 하였다.

3) 후회

모리는 우리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경쟁, 돈 그리고 일상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소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때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우리 삶을 관조하며 이게 전부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뭔가 빠진 건 없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모리가 8살 때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은 모리에게 외로움을 남겼으며 어렸던 모리는 어머니의 병을 자신이 모른 채하면 그 병이 물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비슷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동생은 소아마비에 걸렸다. 다행히 아버지는 재혼하여 모리에게 새 엄마 에바가 생겼으며 그 이후 집안은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가 환하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모리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법과 돌보는 법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잠시 일하러 갔던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였다.

4) 죽음

모리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 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면 매사를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매사가 그 다음부터 아주 다르게 보인다고 하였다.

5) 가족

모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은 우리들이 던고 설 바탕이며, 안전한 버팀대라고 하였다. 그에게 병이 난 이후 가족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졌으며 시인 오든이 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란 구절을 인용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며 모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리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인생에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없는 경험이

며 우리가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6) 감정

모리의 병이 점점 심해져 갈 즈음, 모리는 지금 '경험에서 벗어나기'를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경험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불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세상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삶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모두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을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리는 북아메리카 극지방에 사는 부족은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은 몸 안에 축소된 형태로 존재하는 영혼을 지녀서 몸은 죽지만 작은 형태의 영혼은 계속 생존하여 윤회한다고 믿는다는 말을 전한다.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받아들인 다음 평화로운 곳에 이르러 평온하게 죽고 싶다고 하였다.

7) 나이 드는 두려움

우리들 모두는 무조건 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모리는 자신이 나이 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많은 것을 배우는 데 그것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그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모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받아들이고 그 속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 중요하며 살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8) 돈

우리는 물질과 돈은 많을수록 좋고,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영똥한 데 가치를 두고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서 그 대용품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 동료애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진정 만족을 주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 줌으로서 스스로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 사회 그리고 자기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고 모리는 말한다.

9) 사랑의 지속

모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세상에 오직 그 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진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귀중한 일이다. 모리 아버지의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은 모리에게 어려서 부터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는 포옹, 키스, 대화, 웃음과 작별인사를 못하고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

리에게 죽은 후에 자신이 잊혀질까 봐 두려운 지 물었을 때 모리는 사랑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남미의 테네사 부족은 세상 모든 피조물에 흐르는 에너지 양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탄생은 사망을 낳고 모든 사망은 탄생을 가져온다.

10) 결혼

미치는 모리가 만나고 싶어했던 아내 재닌을 데리고 갔으며 재닌은 모리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 주었다. 모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혼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결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둘이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를 탐색해가는 과정이며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고,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중요성을 믿는 것이며 따라서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였다.

11) 문화

모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등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또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 모두 똑같이 시작되고 죽음으로 똑같이 끝이 난다. 우리는 인류 대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아야 하며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작은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모리는 아이 때와 죽어갈 때 뿐 아니라 중간 시기에도 우린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TV 토크쇼 '나이트라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말한다.

12) 용서

모리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충고한다. 우리가 복수심이나 고집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우리 자신도 여러 이유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해야 하고 자신과 주위 모두와 시간을 끌지 말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리는 죽은 다음 자신이 묻힐 곳으로 언덕 위 나무 밑을 골랐다. 그 곳은 평화로운 곳, 생각하기 좋은 곳으로 그 곳에서 죽어서 지낼 생각이며 자신이 죽은 다음 언제라도 찾아와 말하면 모리 자신이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13) 완벽한 하루

모리는 자신을 찾아 온 랍비에게 장례식 접전을 의뢰했다. 모리는 우리 몸을 단순한 껍질 즉, 영혼이 담긴 그릇으로 보았

다. 그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맺은 인생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모리는 지난 밤 한 때, 전혀 숨을 못 쉬었고, 가슴이 막힌 순간 현기증이 일더니 갑자기 어떤 평화가 느껴졌으며 다른 세상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그는 꿈 속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뻗어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으며 다 가지는 않았지만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맛보았다고 하였다. 모리는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고 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만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모리에게 24 시간만 건강해진다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모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빵으로 멋진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고, 친구와 점심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스파게티를 먹고, 춤을 추고, 집에 와서 달콤하게 자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미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리가 어떻게 이처럼 평범한 하루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곧 그것이 인생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인간 관계에는 일정한 공식이 없다. 양쪽 모두 공간을 넉넉히 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인간 관계이다. 사랑은 비즈니스 협상과 달리,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 에게도 마음을 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14) 작별 인사

미치가 모리 집에 여러 번 왔는데 미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미치의 눈에 들어왔다. 언덕 모양, 돌로 된 집 전면, 수호초, 키 작은 나무, 젖은 낙엽 등이었다. 모리선생님과 미치는 마지막 화요일 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쓰다듬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모리선생님은 토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선생님은 평화롭게 가고 싶어했고, 정말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습한 바람 부는 아침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바로 화요일이었다.

2. 최인호(1945. 10. 17.-2013. 9. 25.)

최인호 작가는 고래사냥, 바보들의 행진, 별들의 고향, 겨울 나그네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가이다. 2008년부터 침샘부근에 발병한 암으로 투병하였다. 다음은 최인호 작가가 2013년 2월 투병 중 출간한 수필집 <최인호의 인생>³⁾의 내용이다. 책 표지에는 '생(生)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命), 그래서 생명(生命)'이란 글이 있다.

1) 병 진단과 두려움

작가는 자신의 병 진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08년 여름 나는 드디어 내 차례를 맞아 암이라는 병을 선

고 받았다. 가톨릭 신자로서 앓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의식을 치렀다. 고통의 축제 기간 동안 느꼈던 기쁨을 많은 분들께 전하려고 한다.” 작가는 투병 생활 동안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걱정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길한 망상 때문인데 어째서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앞당겨 근심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불경에서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며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므로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작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을 구하는 기도였다. 즉,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하였다. 작가는 투병 생활 중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고 처음에는 누워서 잠만 자고 지냈더니 점점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서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하였다. 사실 그에게 5년에 걸친 투병 생활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글을 쓸 수 없는 배고픔이었다. 그는 작가로 죽고 싶었지 환자로 죽고 싶지는 않았다. 2010년 10월 27일 마침내 그는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인디언의 기도는 하느님이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다.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내리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기도는 백발백중이며 기도는 하느님과 통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핫라인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기도의 문제는 기도를 백 퍼센트 들어주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못 느끼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평화는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은 느끼지만 그 것이 이루어지면 금새 잊어버린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는 남은 물은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2) 겨자씨의 비밀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다람쥐굴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다람쥐가 먹이로 보관해둔 3만 2천년 전의 씨앗과 열매가 발견되어 그 씨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4송이 꽃을 피우는데 성공했다. 이름은 패랭이꽃과의 실레네 스테노필라였다.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한 시기는 350만년 전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은 3,500년 전이므로 우리들의 짧은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촌광음에 불과하다고 작가는 말한다. 625사변 때 작가 가족 모두는 한강을 건너 청계산에 숨어 지내시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이 때, 작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예순일곱의 작가는 그 때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져 있지만 다섯 살 때 작가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작가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해와 달이 수미산의 허리를 돈다고 알려진 성산이며 그리 큰 산이 작은 겨자씨 속에 들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예로 성녀 테레사 수녀는 평범한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전념했던 수도자였다. 작가는 성서, 경전을 인간의 잣대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계율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둘째, 음행하지 말라, 셋째, 훔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의사

작가는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의사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성경에도 남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경하라는 글이 나온다고 하였다. 작가의 두 번째 방사선 치료 때 담당의사는 작가에게 냉정하게 올 가을까지만 산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시한부 선고를 하였다. 이 때 작가는 그 의사를 측은하게 느꼈다. “의사는 나의 생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을 끊어버림으로써 고양이의 목을 베었을 지는 모르지만 고양이로서의 환자인 나는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의사는 그가 다루는 지식이 하느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몰랐던 것이다.” 작가는 의사는 환자들을 희망과 용기로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제도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양면의 칼이 있으며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은 그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작가는 2008년 6월 13일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작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은 자주 갈 데가 못 되는 곳,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가는 저주 받은 곳,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격리된 감옥과 같은 수용소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막상 환자로서 병원을 출입하게 되니 세상에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참 많으며 병은 정신적 행복의 한 형식으로 병은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불안에 대한 확실한 한계를 설정해 준다고 하였다. 작가는 죽음에 대해 지상의 어떤 공포도 죽음 이상은 아니며 악마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라고 하였다. 작가는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나의 본래풍광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본래 모습 즉 참나가 있었다고 믿는다. 작가는 나만이 가진 개성, 즉 음란, 어리석음, 분노, 탐욕, 편견, 거짓 등의 번뇌는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전형질과 전생에서 저지른 악행과 선행으로 인해 받은 업(Karma) 때문일 것이라고 믿는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의 눈에서 바라보라고 하였다.

4) 혼잣말

작가는 혼잣말을 자주 하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욕설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혼잣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스스로를 격려하면 기적과 같은 용기가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은 나 자신이며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벗도 나 자신이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나 자신 속에 있고 나를 해치는 무서운 칼날도 나 자신 속에 있다. 작가는 이 두 개의 나 자신 중에 어느 나를 좇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5) 아름다운 인생

작가는 우리들의 가족이야말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한다. 작가의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셨고 작가에게도 어머니의 꽃 사랑 유전자가 흘렀다. 작가는 인생에서 만난 가족, 친지들에게 “그대들은 인생의 꽃밭에서 만난 소중한 꽃들과 나비인 것이니 숨은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피어나라.”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하라.” “그리고 마음껏 춤춰라.” 라고 주문한다.

6) 이태석 신부와의 만남

2010년 1월 성모병원에 입원한 작가는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태석 신부를 만난다. 작가는 신부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병원 복도에서 정신적 고향인 아프리카의 음악을 듣고 있던 신부는 육신은 병들어 병원 휴게실에 초라하게 있지만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곳에 가 있었다.” 몇 일 후 작가는 퇴원하는 신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잠시 부둥켜안고 헤어졌으며 몇 일 후 신부님의 육신은 허물을 벗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그 곳으로 가신 것을 알았다. 작가와 신부가 함께 나는 짧은 포옹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지상과 하늘나라가 연결되는 찬란한 동산에서 나는 날카로운 영원의 첫 키스와 같은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7)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남

2003년 작가와 추기경과의 대답에서 추기경은 아버지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집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다. 비록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딤돌 위에 고무신이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멀리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하여도 집안은 평화롭다.” 작가는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작가는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므로 우리가 보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그 분을 만날 수 있고, 그 분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며 그것이 죽음의 신비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가는 꿈속에서 수술 받은 자신의 왼쪽 얼굴을 두 번 쓰다듬으시는 추기경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추기경님은 휠체어도 타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나를 찾아와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신 것임을 나는 믿는다.”

8) 법정 스님과의 인연

2010년 3월 작가는 폐암으로 투병 중 열반하신 법정 스님 조문을 위해 길상사를 찾았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소유하려 하였던 수행자였다. 부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실체도 없는 나에게 집착하면 항상 근심과 고통이 생기는 법이니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나를 버리라고 하였다. 그 것을 버리면 영원한 평안을 느낄 것이므로 물질, 감각, 생각, 의지작용 모두를 버리라고 하였다. 또 성철스님은 법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며 하늘과 땅이 무너진 다 해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유형 무형할 것 없이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들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종말을 걱정하여 두려워하며 헤메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러 온 것 입니다. 이렇듯 크나 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이 성철 스님의 법문은 작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은 2003년 4월 작가와의 대화에서 죽음에 대해 무섭지 않을 것 같으며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폭이 훨씬 커지고 사물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지므로, 죽음은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였다. 불교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어하던 작가에게 법정 스님은 “쓰고 싶어서 언젠가는 쓰게 되겠지요. 업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업이 되어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라고 답한다. 이 순간 작가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숙세의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작가는 법정 스님은 무소유마저 무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아쉬워하며 모든 것을 얻기에 이르려면 아무 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는 역설의 진리를 말한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한 두 권의 책을 선택하려면 화엄경과 함께 어린왕자를 고르겠다고 하였다. 어린왕자를 선택한 이유로 어린왕자는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며 법정 스님은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정 스님의 <미리 쓰는 유서>에서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별나라.”라고 쓰고 있다. 작가는 우리 곁에 왔었던 법정, 인간 박재철은 어린왕자의 환생이 아니었을까 하고

문고 있다. <최인호의 인생> 마지막 글귀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난다. “나는 비틀거리며 봄빛이 가득한 언덕길을 올라갔다. 어쨌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햇명세에. 어느 날 봄날은 오고, 그리고 봄날은 언젠가 갈 것이다.”

3. 스티브 잡스(Steven Paul Jobs; 1955. 2. 24-2011. 10. 5)

스티브 잡스는 애플컴퓨터와 아이패드, 아이폰을 개발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스티브 잡스의 투병 과정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⁴

1) 암의 진단

자서전에서 잡스는 췌장 종양의 진단 과정과 본인의 진단 후 심경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신장결석의 과거력이 있던 스티브 잡스는 2003년 10월 잘 알고 지내던 비뇨기과 의사를 우연히 만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우연히 찍은 CT에서 췌장에 음영이 발견되었으며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시행하여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되었다. 의사들은 즉각 수술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당시 힌두교에 심취해있던 잡스는 진단 후 평소 힌두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던 래리 브릴리언트에게 전화를 하여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술을 거부한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스티브 잡스는 엄격한 채식, 민간요법, 심령술을 시행하였다. 의사들이 자신의 몸을 여는 게 싫었다는 것이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였다. 2004년 7월 추적 CT 결과는 종양이 커졌으며, 간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티브 잡스는 2004년 7월 31일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변형휘플 수술을 받았다. 종양은 제거되었으나 간전이 세 군데 발견되어 이후 여러 번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2005년 6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미 알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하였다.

2) 암의 재발

항암 치료 도중 2008년에 암이 재발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화학요법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후 여러 실험적인 치료를 받았다. 2009년 2월에는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뿐 아니라 테네시 주에도 등록을 하였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빠른 간이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2009년 3월 21일 스티브 잡스는 테네시 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젊은 남자의 간을 이식 받게 되었다. 2011년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자택을 방문하였다. 둘은 미래의 학교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착

한 자녀를 두었으니 자신들은 행운이라며 자신들을 반미치광이로 낙둔 부인들에게 감사하였다.

3) 말기의 투병

스티브 잡스는 신께 나름대로 간청을 올릴 정도로 2010년 6월 아들 리드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꼭 가고 싶어했다. 아들 리드는 스탠퍼드 암연구소에서 여름방학 때 일을 하였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아파서 좋은 점 하나는 리드가 아주 훌륭한 의사와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최대 혁신이 생물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010년 11월경 암 재발의 신호가 나타났다. 스티브 잡스는 통증으로 먹을 수가 없었으며 체중이 20 kg 감소하였다. 2011년 초 의사들은 종양 재발을 감지하였고 2011년 7월에 암은 뼈까지 전이되었다. 2011년 8월 스티브 잡스는 자서전에 쓸 사진을 골랐다.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알고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과,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이었다. 2011년 8월 24일 애플 이사회가 열렸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의 CEO를 사임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타깝게도 그 날이 왔으며 본인은 일에서도 삶에서도 행운을 누렸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퇴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4) 스티브 잡스의 죽음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티브 잡스는 50 대 50이라고 말한다. 잡스는 인생 대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으며 의식은 영속한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한편 그는 인생은 그냥 전원 스위치 같이 딸깍! 누르면 꺼져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며, 자신이 애플 기기에 스위치를 넣는 걸 싫어한 이유를 죽음에 비유해 이야기했다. 죽기 전 날 스티브 잡스는 신과 사후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일 살아있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티브 잡스는 등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임종 전 마지막 말은 “OH WOW, OH WOW, OH WOW.”였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하였다.

4. 강영우(1944. 1. 16-2012. 2. 23)

강영우 박사는 한국인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다. 맹인이지만 장애를 잘 극복하였으며 무엇보다 투병 중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족과 지인에게 뜻 깊은 작별 인사 편지를 남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영우 박사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⁵에는 강영우 박사의 인생 극복의 진솔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실명하

게 되었다. 실명 후에도 1968년 연세대 교육과에 입학하였고 1972년 2월 중학생 때 자원봉사자로 만나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간 지낸 석은옥씨와 결혼하였다. 1972년 8월 아내와 함께 도미하여 피츠버그 대학 석사를 거쳐 1976년 한국인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다. 하지만 2011년 말 최장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 후 국제로터리재단평화센터에 장학금 25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강영우 박사는 큰 아들이 어렸을 때 눈 뜬 아버지를 가지고 싶으니 아버지 눈을 고쳐달라는 소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들의 이 소원은 본인에게 실명보다 더 큰 아픔이었고 그 이후 잠자리에 든 아들에게 매일 어둠 속에서 점자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강영우 박사는 “1) 결코 포기하지 말라, 2) 유머 감각을 가져라, 3)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4)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나로 인해 세상이 변한다”라고 말한다.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강영우 박사는 가족과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작별 편지를 보냈다.

1) 두 아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한 추억이 내 맘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 보기도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서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2)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라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느냐.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어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3) 지인들에게

즐거운 성탄과 2012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뜻 깊고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50년 전 서울맹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자원봉사자 여대생인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그 예쁜 여대생 누나에게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이름 석자.

“석. 은. 옥.”을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중략) 단 둘뿐이었던 저희 부부가 올망졸망 손녀딸들과 손자를 데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짬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중략)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 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 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중략)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5. 랜디 포시(Randy Pausch; 1960. 10. 23-2008. 7. 25)

랜디 포시는 Carnegie Mellon 대학 교수로서 47세에 최장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 전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가진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데, 이 강의 내용을 보완하여 <마지막 강의>⁶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웹 상에서(www.thelastlecture.com) 이 강의의 동영상은 볼 수가 있다. 다음은 마지막 강의에 언급된 내용이다. 랜디 포시는 암이 아내 재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자신이 죽는다

는 이 영화의 끝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랜디 포시는 항상 꿈을 꾸고 살았으며 디즈니사 입사가 평생의 꿈이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디즈니사에 입사 원서를 냈으나 불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랜디 포시는 교수가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디즈니사로부터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15년 후에 결국 디즈니사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인생에 왜 장애물이 생기고 어떻게 그 장애물을 통해 꿈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위해서는 좋은 부모님이 계셔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아버지에게는 겸손을,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호된 질책을 배웠다고 하였다. 랜디 포시는 만화영화 '곰돌이 푸(Pugh)'에 나오는 티거(Tiger)처럼 신나고 재밌게 살 것을 주문한다. 또한 주위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주문한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은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감사인사를 하라고 주문하며 감사는 간단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주문한다. 불평과 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의 마지막에 랜디 포시는 이 강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아직 어린 자신의 세 아들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이 강의를 볼 것이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꿈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6. 전몽각(1931. 2. 12-2006. 5. 6)

전몽각 교수는 건축학 전문가이며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며 고속도로 개발현장을 찍은 사진을 남겼고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최장암으로 2006년 작고하기 전 <윤미네 집>⁷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딸 윤미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의 사진과 가족에 대한 글을 남겼다. 다음은 <윤미네 집> 내용 일부이다. “지난 해(1989), 스물여섯이 된 윤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짝을 따라 그토록 정다웠던 동지를 떠나 새로운 동지를 찾기 위해 우리 가족들 곁에서 날아갔다. 그 때쯤부터 나는 무심결에도 하늘을 올려다 보는 못된 습성이 생겼다. 김포 쪽 하늘에는 웬 비행기가 그토록 실 새도 없이 뜨고 또 내리는지...” 다음은 딸의 사진집을 만들기로 결심한 내용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적고 있다. “윤미가 없는 윤미네 집. 그때서야 나는 아이들 사진 찍는 일도 마무리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년 동안 찍어 둔 필름몽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저 낡은 이후로 안고 엮고, 뒹굴고 비비대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지르고 꼬집고 깨물어가며 아이들을 키웠다.” 다음은 최장암 진단 당시의 심정을 적은 글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그 끝마무리가 당초 뜻대로 되지 않는다. 2002년 7월 말 한창 더운 날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촬영을 한 후 몸져눕고

말았다. 8월에 뜻밖에도 최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토록 사랑하던 집사람과 그토록 소중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와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우선 얼마 안 남은 내 여생에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 집사람과 약속했던, 칠순 때 내주기로 한 집사람의 사진집 출간이 무엇보다 급했다. 그래서 결혼 전 집사람을 만나 데이트하던 시절부터 오늘까지의 사진들을 간추려 우선 내 홈페이지에라도 정리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를 여기에 내놓은 것이다.” 다음은 전몽각 교수가 사망한 후 부인이 적은 ‘사랑하는 남편과 지난 날을 추억하며’라는 글이다. “2002년 남편은 발병한 것을 알자 내 사진부터 정리했다. 그 당시 건강 상태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암실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지만 나는 말릴 수도 없었다. 이미 황달이 시작되고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으나 글까지 써서 가제 ‘마이 와이프’를 마무리 지었다. 아내를 떠나면서 이 땅에서 선생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중략)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차츰 안정이 되고 서울 근교에서 멀리 설악산과 동해안 등 촬영지를 넓혀갔다. 그런 시간이 마냥 지속될 것만 같아 보였다. 매일같이 하루를 천 년 같이 살자. 그러면 충분하지 그렇게 다짐했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을 때는 무섭고 두려웠다. 그가 없는데 달이 뜨면 어찌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오면 혼자서 어떻게 할까? 결혼 전과는 달리 결혼 후에는 쓰잘 것 없는 일로 다투기도 참 많이 했다. 항암치료 중에는 사진촬영 하러 돌아다닐 때 주로 길 찾는 일로 다투었는데 돌아올 때는 서로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아서 아들이 내비게이션을 달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사이에 두고 또 다투었다. 나는 남편과 다투던 그 시간이 그림자.” 이상의 글로서 전몽각 교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최장암 진단 후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다.

결 론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질환의 많은 부분이 치료되고 있으나 아직도 암을 포함한 적지 않은 소화기 난치병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의 이야기를 돌아봄으로써 소화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환자를 이해하고 의학적인 치료 이상의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알아보았듯이 난치병 환자들의 투병 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였으며 치료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의 믿음이 중요하였다. 암 환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환자는 인생의 마무리에서 가족과의 사랑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을 앞둔 환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되돌아 봄으로 소화기 의사로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1. Moon JS. Understanding of patients suffering from gastroenterologic incurable disease: Perspective of celebrities' embracement. *Korean J Gastroenterol* 2012;60:155-161.
2. Albom M. Tuesdays with Morrie. Seoul: Sejong; 2002. pp. 248.
3. Choi IH. The life of Inho Choi. Seoul: Yeobaekmedia; 2013. pp. 288.
4. Isaacson W. Steve Jobs. Seoul: Mineumsa; 2011. pp. 925.
5. Kang YW. Only hope I could see. Seoul: Duranno; 2012. pp. 304.
6. Zaslav J, Pausch R. The last lecture. Seoul: Sallim; 2011. pp. 380.
7. Jeon MG. Yunmi's home. Seoul: Photonet; 2010. pp. 207.